

화순군 “벼 육묘상자 처리제 교환권 서둘러 사용하세요”



초기 병해충 방제 3500ha에 3억5000만원 지원 지역 내 농약 판매업체 이달 말까지 처리제 교환

화순군은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벼 일반 재배 농가로 3500ha에 3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육묘상자 처리제는 모내기 직전

모판에 사용해 도열병, 흰잎마름병, 물바구미, 애멸구 등 분담 초기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향후 살포 횟수와 사용량을 줄여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화순군은 지난 2018년부터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농가 신청 면적에 따라 금액이 명시된 농약 교환권을 발행하고, 농가는 자율적으로 농약과 판매업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교환권의 지역 내 사용으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환권은 지역 농약 판매업체에서 5월 말까지 처리제로 교환하면 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 이외에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지원 사업과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적기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박차 ‘안전도시분과위’ 개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조성 및 사업 추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나주시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위한 민·관 협력과 공감대 구축에 힘쓰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7개 분과 ‘안전도시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한국센터장 특강, 나주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사업추진 결과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재해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SSC·스웨덴)는 7개 항목의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를 엄선해 인증을 부여한다. 전 세계 32개국 405개 도시, 국내 21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받았다. 조준필 센터장은 특강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의 의미와 주요 사업, 사업수행의 중요성, 안전도시분과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사고로부터 안전수준 이상임을 인정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손상유발인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수준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10월 출범한 안전도시분과위원회는 ‘교통안전’, ‘여성가족’, ‘노인·장애인’, ‘범죄폭력예방’, ‘재난안전’, ‘자살건강증진’, ‘기후환경대응’ 등 총 7개 분과로 구성됐다.

나주시와 경찰서, 소방서, 도로교통공단, 교육지원청, 대한노인회, 동신대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2개 기관·사회단체 소속 실무위원 73명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조성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써 나주시 안전증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민 의견 수렴에 따른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은 안전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닌 안전도시분과위원회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인증 받는 것”이라며 “국제안전도시 7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과 민관 협력을 통해 2022년 6월 공인 인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떡제조기능사 과정 필기 21명 합격...실기 준비 돌입

농촌여성 경쟁력 향상시키는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



구례군이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전문자격 취득교육 ‘떡제조기능사 과정’의 37명 응시자중 21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12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번 떡제조기능사 과정은 군민 37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이다. 군은 우리 떡에 대한 지식과 제조기술 습득

을 통해 우리 쌀 소비 촉진 전문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일상과 농사일에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교육에 성실히 참석해 시험에 합격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실기시험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4차례의 실기시험 실습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차질 없는 교육추진으로 교육생 전원일 떡 제조기능사 최종 합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해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활용법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제2회 곡성군 귀농귀촌실태조사 실시

곡성군이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21년 제2회 곡성군 귀농귀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인구 감소 대책과 인구유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3년 주기로 귀농귀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제1회 조사를 실시했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제2회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조사는 최근 3년 간(2018년~2020

년)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주와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이 각 귀농귀촌 가구를 방문해 전입, 주거, 사회적 관계, 행정·정책, 개인·가구, 귀농 등 총 6개 분야 51개 항목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분석 과정을 거쳐 10월경 최종 발표한다.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곡성군은 24명의 조사요원을 채용했다. 이어

12일에는 조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조사를 통해 곡성군은 귀농귀촌 가구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해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간다는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응답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 응답자분들께서는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담양군, 세계 금연의 날 맞아 캠페인

초·중·고 12개소 등굣길서연 및 음주폐해 예방교육 진행

담양군이 오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두 달간 지역사회 중심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캠페인 ‘담배는 노담(No담), 나는 노담(No담배)’ 주관을 운영한다. 이번 금연 캠페인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12개소를 중심으로 학교별 등교시간에 맞춘 등굣길 캠페인, 흡연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흡연 및 음주폐해 예방교육 등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군은 이번 캠페인 주간 운영을 통해 청소년 흡연 경험률 및 흡연을 감소 등 청소년을 조기 흡연으로부터 차단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금연 환경조성 캠페인을 확대 운영해 지역사회 전체의 건



강진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전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애에서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예방사업을 통해 평생 흡연자료를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